큐아 QI
Qualitative Inquiry

Newsletter 02 / 2016 September

발행처_한국질적탐구학회
발행인_전영국
편집인_최의창
사무국_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255 순천대학교
사범대학 2호관 203호
(Tel_061-750-3903)

한 국 질 적 탐 구 학 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Qualitative Inquiry

President's Greeting



한국질적탐구학회 회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가을에 잘 지내고 계신지요. 저희 학회는 춘계 학술 대회를 연세대학교에서 개최하여 약 200명이 참가하는 등 참가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학회 부회장이신 연세대학교의 이철원 교수님의 노력과 정성으로 춘계 학술대회를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참가하신 여러분들과 이철원 부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을에는 다양한 질적 연구 방법을 소개함으로써 회원 여러분들의 학술적 활동과 논문 작성에 도움을 주고자 예년과 달리 한달 정도 일정을 앞당겨 9월 24일(토)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학술대회 발표를 대폭 줄이고 기초와 심화 과정으로 나누어서 질적 연구 방법을 실제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워크샵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이번에 발간하는 뉴스레터를 통하여 회원 여러분이 질적 연구 동향에 관한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오니, 학술 활동에 참고하시고 주위 분들에게 학회를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향후에 세계질적탐구학회(ICQI, International Congress of Qualitative Inquiry)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학회의 폭과 깊이를 더해 나가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항상 질적 탐구에 관한 열정과 공감을 향유하면서 회원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학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학회장 전영국 드림





(지난 4월 23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춘계 학술대회의 모습)

무지개

편집장 / 최의창

기억하시나요? <무지개>란 시. 학창시절 국어시간에 배웠던 것으로, 워즈워드의 작품이죠. 작년, 어떤 글을 쓰다가 인용할 요량으로 오랜만에 찾아보았습니다. 삼십 오년도 더 넘어서 다시 읽어보니, 한글로 옮긴 번역문이 그리 가슴에 와 닿지 않았습니다. 학생시절에는 시험공부를 위하여, 감상보다는 분석위주로 읽었을 뿐이어서 이 점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원문을 찾아보고, 외람되게도, 직접 우리말로 옮겨보려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른이 된 이후에 무지개를 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되살려 내려고 애를 써보았네요. 그런데 실망감과 자책감만 잔뜩 맛보았습니다. 본격적으로 논문 쓰는 인생으로 (잘못) 들어서고 나서부터는 그런 적이 거의 없어서요. 아무튼, 최대한 저 자신에게 가까이 와 닿는 단어를 고르고 문장으로 엮으려 해보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머리 아픈 일을 하는 도중 제게 작은 깨달음 한 가지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외국시를 한국말로 옮겨내는 일은 질적 연구를 진행하면서 데이터를 해석하는 일과 흡사하다는 사실입니다. 영어시를 한국어로 옮겨내는 과정은 연구자의 전인식全認識이 관여하는 총체적 풀어내기의 과정인 것이죠. 낱개의 단어를 풀이하면서 시 전체의 맥락을 고려하고, 거꾸로 시 전체의 맥락에서 낱말의 의미를 조정하는 과정이 주가 되지요.

영어 시 전체를 여러 차례 읽습니다(참여관찰). 그때마다, 시를 만들고 있는 영어 단어, 구문, 문장으로부터 느낌과 이미지와 생각들이 떠오릅니다(데이터 수집). 이것들이 모양새를 갖추고 의미를 갖도록 가장 적합한 우리말 단어, 구문, 문장을 빚어냅니다(해석과 표현). 번역은 제2의 창작이라고 하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낸 후라면 틀림없는 말입니다. 단순히 단어의 치환만으로는 그렇게 부를 수 없겠죠.

워즈워드의 시 <무지개>를 꾸려낸 62개의 영어 단어들은 아직 확실한 의미가 주어지기 전의 데이터들입니다. 저는 그 각각의 낱말과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구문에 한국어로 의미를 부여해주고, 나아가 우리말 문장으로 엮어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한편의 우리 시로 완성해내는 것이죠. 물론, 영문 원본과 동일한 번역, 즉 데이터의 최종적 의미 파악이란, 그저 희망일 뿐입니다. 옮긴이로서는, 오로지, 진실성을 최대한 확보하려 노력할 뿐이지요.

도대체 이 깨달음은 어떤 실제적 의미를 갖는 것일까, 하고 생각해보았습니다. 즉시 떠오르는 한 가지 대답은, 영시번역은 연구자의 데이터 해석력과 표현력 증진을 위해 활용될 수 있겠다, 입니다. 평상시에 외국 시를 읽고 음미하면서, 그것을 어떻게든 자신의 전인식을 활용하여 스스로에게 의미있게 만들고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려는 연습(즉, 한글화하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최근 관찰과 면담으로 얻은 자료들을 압축해서 시적 표현으로 재구성해내는 기법이 부각되고 있는데, 그 역량의 함양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듯합니다.

뭐, 간단히 이런 체험을 하였던 것입니다. 아참, 그렇게 해서 얻어진 산고의 소산은 어디있냐고요? 구관이 명관이라더니, 바로 제 꼴이더라고요. 마쳐놓고 나니, 역시나 전문가의 번역과는 비교도 되지 않네요. 그치만, 아무래도 저는 좋습니다. 제게는 더 피부 깊숙이 와 닿으니까요. 워즈워드님께서도 용서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최의창판 <무지개>는 아래와 같습니다.

My heart leaps up when I behold
A rainbow in the sky:
So was it when my life began;
So is it now I am a man;
So be it when I shall grow old,
Or let me die!
The Child is the father of the Man;
And I could wish my days to be
Bound each to each by natural piety.

저 하늘 무지개 바라보면
내 가슴 기쁘게 뛰노네.
나 어릴 적에도 그러했고
다 자란 지금도 그러하고
더 늙은 나중도 그러하리.
아니면 죽음이 더 나으리!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
내 삶 남은 모든 날들이여
자연의 경외감으로 엮여지기를.

New Research

교육

(Im)Possible Identity: Autoethnographic (re)Presentations

문승호 (Loyola University Chicago)
Chris Strople University of Maine at Farmington)

질적연구방법론 담론에서 경험, 정체성, 그리고 이를 표현하는 기법에 대한 논쟁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는 질적연구자가 체험하는 인식론적 제한점, 즉 다양한 "실재"(realities) 를 표현하지 못하는 언어적 제약과 해석상의 문제점을 후기구조주의 관점에서 조명한다. 특히 자문화 내러티브 기법에조차 주관성을 전적으로 묘사하지 못하는 인식론적 어려움과 딜레마 속에서, 다양한 표현의 (불)가능성을 두 가지 내러티브 사례를 통해 제시한다. 통계적 수치와 "정확한" 언어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대담론을 거부하고 대항담론 (counter-narratives)을 통해 질적연구에서의 다양하고 색다른 표현기법을 이론화한다.

이 논문은 2016년 여름 유명한 SCOPU S저널인 The Qualitative Report (TQR)에 간행되었다. 자문화 내러티브 기법의 방법론적 범주와 그 지평을 넓히는 과정에서, 두 저자는 다양한 표현기법을 접목하였다. 문승호 저자는 영어와 한국어 사이를 넘나드는 언어적, 문화적 정체성을 편지와 여러 이미지를 통해 기술하고 묘사한다. 한국어는 모국어 (mother tongue), 영어는 "부국어" (father tongue) 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데리다 (Derrida) , 버들러 (Butler), 시수 (Cixous)의 이론에 근거하여 "m/other tongue"의 개념을 시로 표현한다. 특히 이 시를 영어와 한국어로 낭송한 내용이 유튜브에 등재되어있다 (https://youtu.be/zd7pE0jC0x8). Chris Strople 저자는 경험과 지식에 대한 내러티브를 비디오 영상, 사진 이미지, 그리고 언어를 통해 표현하고 그 (불)가능성에 대해 논의한다. 시인이자 비디오 아티스트인 저자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대한 존재론적 궁금증과 배움의 과정을 10분 가량의 비디오로 제작하였다. 이 비디오 역시 유튜브에 등재되었으며, 논문 속에 그 링크가 제시되어 있다 (https://youtu.be/4Gi0pn1iZdo). 질적연구의 다양한 표현방법을 이론화하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자 하는 질적연구자들에게 신선한 인식론적, 존재론적 영감을 줄 수 있는 논문으로 평가한다.

In this paper, we examine experience, identity, and their intersections. Working from an autoethnographic positionality, we investigate the insufficiencies of language and the limitations of any given researcher with an intent to address multiple realities and their respective interpretations of meaning. Autoethnographic narratives with the use of visual, written, and multimedia representations further acknowledge the dilemmas of qualitative researchers when they cannot fully describe subjectivities in research. What is deemed to be valid research is often indicative of a theoretical framework that aggressively seeks to invalidate other perspectives and ways of knowing. Thus, we create research spaces by employing counter-narratives as well as different representations that seek to challenge grand narratives in educational research—namely, a high reliance on numbers or written representations. Such challenges are critical to understanding the advancement of research, and enhancing the public discourse regarding educational research.

Moon, S., & Strople, C. (2016). (Im)possible Identity: Autoethnographic (re)Presentations. *The Qualitative Report, 21*(7), 1320-1350.

비자살적 자해의 시작과 중단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 김수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과정)

본 연구는 내러티브 탐구라는 관계적 맥락에서 연구참여자의 삶 속에서 경험된 비자살적 자해의 시작과 중단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독특한 의미를 발견하고, 자해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연구참여자들의 자해의 시작과 중단은 시간적·사회적·장소의 3차원적 내러티브 탐구공간에 따라 어떻게 경험되는지, 또한 그 경험의 의미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삶의 이야기를 통해 탐색하였다. 내러티브 탐구는 연구참여자의 살고 말한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로 다시 삶을 사는 재구성의 과정을 통해 개인적, 사회적 성장이 일어나는 것을 강조하므로, 본 연구에서도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함께 개인적, 사회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고자 하였다.

연구의 진행을 위해 자해의 경험이 1년 이상이며, 현재는 1년 이상 자해를 중단 및 조절하고 있는 21세에서 27세의 성인 3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로 연구참여자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해서 연구 텍스트를 작성하였고, 이후 추가면담은 2016년 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진행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Clandinin과 Connelly가 제안하는 내러티브 탐구의 절차에 따라 수행되었으며, 연구참여자들의 면담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어나가며 시간성, 사회성, 장소를 의미하는 3차원적 내러티브 탐구 공간을 염두에 두고 작성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퍼즐과 그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퍼즐 1은 '연구참여자들의 삶의 이야기가 어떻게 반복적인 비자살적 자해 경험을 형성하는가?'이다. 연구참여자들의 자해의 시작과 중단 경험에 대한 이야기는 〈삶의 이야기〉, 〈자해의 시작〉, 〈자해의 중단〉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김현아]의 이야기에서 〈삶의 이야기〉는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 '어디서 굴러들어온 돌마냥', '마지막으로 너가 하고 싶은 것을 해봐라', 〈자해의 시작〉은 '울다가 녹아 버릴 거 같던 엄마와 언니', '찌를 수 있으면 찔러봐', '조금씩 캄다운시키는 시간', 〈자해의 중단〉은 '혼자만의 제스쳐', '흉터 남으면 안되니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작업... 작가로서의 삶' 이었다. [박유리]의 이야기에서 〈삶의 이야기〉는 '꼬질꼬질하던 아이', '난 문제아가 아니야', '나와 같은 아이들이 없었으면', 〈자해의 시작〉은 '내 편이 아무도 없다', '스스로 찾은 위로', '고통을 즐기다', 〈자해의 중단〉은 '엄마가 미안해', '다른 방법으로 풀어내다', '살고자 하는 마음이 더...' 이었다. [이대호]의 이야기에서 〈삶의 이야기〉는 '혼자 가버린 아빠처럼', '가면 쓰고 살아가기', '이제 제대로 살아보자', 〈자해의 시작〉은 '가장 강한 사람이 가장 약한 사람으로', '깨지기 시작하는 가면', '저 홀로 짐을 진 달팽이', 〈자해의 중단〉은 '괜찮아질 거야... 이제 괜찮아, 괜찮아', '나를 이해하는 사람',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 이었다.

연구퍼즐 2는 '시간성, 사회성, 장소의 3차원적 내러티브 탐구 공간에서 연구참여자들의 자해의 시작과 중단의 이야기는 어떻게 이어지고 구성되어지는가?'이다. 시간성 속에서 연구참여자들은 과거의 경험들로부터 상실의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충분히 흔들리며 걸어왔고, 삶의 지향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내적인 고통을 견디기 위해 자해를 통해 스스로에게 말을 걸면서 고통을 잠재우는 방식은 아무도 모르게 혼자만의 공간에서의 개인내적인 소통이었으며, 나아가 사회적인 소통의 의미를 재인식하면서는 사회를 향해 성큼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미술을 통해 평생학습 공간에서 성인학습자들과 만나고, 아동보육의 현장에서 어린 아이들과 만나며, 대학이라는 장에서 동기, 선후배들과 만나고 있다.

연구퍼즐 3은 '연구참여자들의 삶의 경험 속에서 자해의 시작과 중단의 의미는 무엇인가?'이다. 연구참여자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이해한 자해의 시작과 중단에 대한 경험의 의미는 〈별이 지다... 길을 잃다〉, 〈아슬아슬한 경계... 외줄타기〉, 〈존재의

버팀목〉, 〈삶의 나침반〉, 〈나에게 이르는 길〉로 5가지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별이 지다...길을 잃다〉는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한 상실과 그로 인한 내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가족과의 이별 혹은 사별을 통해 감당이 어려울 만큼의 슬픔과 좌절을 경험했고, 이후 힘든 일이 있어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보다는 혼자서 해결하게 되었다. 자해 또한 심리적인 고통을 혼자서 해결하려는 하나의 시도였다. 〈아슬아슬한 경계...외줄타기〉는 자해를 통해 삶을 포기하지 않고 견뎌내는 모습을 의미한다. 외줄타기〉는 자해를 통해 삶을 포기하지 않고 견뎌내는 모습을 의미한다. 외줄 위에서 자칫 균형을 잃으면 바로 바닥으로 떨어지는 공간에서 긴 장대를 통해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으며 앞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삶과 죽음이라는 경계에서 흔들릴 때마다 자해를 통해 다시금 삶의 자리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몸짓으로 해석하였다. 〈존재의 버팀목〉은 외줄 위에서 위태롭게 흔들릴 때마다 자해를 통해 버텼지만 정작 돌아보니 혼자가 아니었음을 인식하게 된 모습을 의미한다. 가족과 주변의 고마운 이들은 나무가 쓰러지지 않고 잘 성장해가도록 지지해주는 버팀목의 역할을 해 준 존재였다. 〈삶의 나침반〉은 삶의 목표를 발견하고 노력해가는 존재의 모습을 의미한다. 길을 잃고 방황하던 시간들 속에서도 삶의 나침반이 되어주는 목표를 통해 방향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으로 해석되었다. 〈나에게 이르는 길〉은 힘든 순간마다 온 몸을 던져 견디던 삶의 과정 속에서 결국 찾고자 했던 의미는 자기 자신이었음을 의미한다. 마치 한 세계를 깨뜨림을 통해 알에서 나오는 새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가운데 결국엔 자기 존재를 찾아가기 위한 과정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비자살적 자해의 시작과 중단 경험을 개인적 정당성, 실제적 정당성, 사회적 정당성의 맥락에서 연구결과를 논의하였다. 첫째, 연구를 진행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So what?', 'Who cares?'라는 질문을 가지고 연구자로서 내러티브 탐구 안에 위치 지움을 하고자 하였다. 내러티브의 시작을 통해 연구자 자신을 이해하고 돌보게 되었으며, 연구참여자들 또한 삶의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자신으로 온전히 살아나가는 용기를 보여주었다. 둘째, 자해의 회복과 중단을 돕기 위해 상담의 현장에 전달할 수 있는 실천적 함의는 자해의 이면에 감추어진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참여자의 이야기 속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자해의 목소리는 '상실로 인한 좌절', '상처를 통한 자기위로', '고통을 전달하는 메시지'로 나타났다. 셋째, 내러티브 탐구를 통한 연구참여자와의 만남은 존재로서의 관계맺음을 경험하는 과정이 되었다. 삶의 경험 가운데에서 혼자만의 방식으로 고통을 해결하며 자기 안에 머물던 이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 가운데 발견한 주제들은 '구체적인 삶의 목표', '정서조절을 위한 대안', '지속적이고 의미있는 관계'이다.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이야말로 사회적 정당성의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비자살적 자해의 시작과 중단 경험을 이해하고자 수행된 본 연구는 비자살적 자해와 관련된 국내 연구가 극히 드문 상황에서 연구참여자의 살아온 이야기를 바탕으로 보다 생생하게 비자살적 자해를 이해하고자 질적연구 중 내터티브 탐구를 실시한 점, 비자살적 자해를 시작하고 중단하게 된 과정을 내부자적 관점으로 새로운 이해를 제시하였다는 점, 그리고 자해의 시작요인과 중단요인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발견한 점이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에서는 내러티브 탐구 외에 다양한 질적연구방법 뿐만 아니라 자해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와 자해 측정도구에 대한 번안 및 개발 등을 통해 자해에 대한 이해의 장을 확장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또한 자해의 시작과 중단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이론적 모형검증을 통해 자해의 중단과 개입방법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음에 시사점을 두었다.

김수진. (2016). 비자살적 자해의 시작과 중단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체육

The importance of indirect teaching behavior and its educational effects in physical education /

정현우 (한국스포츠개발원 연구원)
최의창 (서울대학교 교수)

***Background*:** Physical education teacher behaviour has been a subject of study in physical education including physical education teacher education for 30 years. However, the research on teacher behaviour has tended to focus on direct teaching behaviour (DTB) to demonstrate the benefits of effective teaching, centred on a technical understanding of the process of teacher behaviour. A holistic approach for teaching behaviour is needed in order to give students educational experiences.

***Aims*:** Drawing on the studies of implicit ways of teaching, the aim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 new approach of researching teacher behaviour in order to understand the social and moral assumptions and to promote students' motivation to engage in physical activities that are embedded in the act of teaching in physical education through the identification of indirect teaching behaviour (ITB).

***Method*:** An ethnographically informed case study based on participant observation (eight months) was employed. The researcher observed students in two 8th-grade (13 years old) co-ed physical education classes in South Korea. Participant observation was supported by participant observer field notes, audio/video recordings of classes, questionnaires, and interviews.

***Findings*:** Through inductive analysis of the data, the multiple ITBs were identified including tone of voice and intonation, humour, facial expressions and gestures, dress code and setting an example, touch, encouragement, and care. ITB had a powerful influence on students' social and moral development in terms of reflecting on themselves by the teacher's positive modelling, cooperating with other friends and learning the intrinsic value of physical activities and sports. ITB was also found to impact the student's perceptions of physical education and their physical education teachers, which seems to encourage them to learn more about the lesson.

***Conclusions*:** An understanding of ITB will help broaden the perspectives on teaching methods used and studies conducted in physical education beyond the dominant approach of DTBs. Teachers need to reflect upon their behaviour in the physical education class, even if their teaching behaviours are regarded as trivial. Furthermore, the understanding of ITB can also play a pivotal role in encouraging pupils to enjoy the intrinsic value of physical education centred on moral values, and fostering a passion for physical activity that extends into participation for life. In this sense, this insight suggests that researchers re-examine the power of ITB in relation to teachers' professional competence. Teacher educators need to intentionally cultivate the character of teacher candidates in their professional preparation phase in addition to ITB-related studies in physical education.

Jung, H., & Choi, E. (2016). The importance of indirect teaching behaviour and its educational effects in physical education.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Pedagogy*, *21*(2), 121-136.

대학 교양 우수강좌 사례연구: 무용강좌 교과과정과 교수법의 특징을 중심으로 / 임수진 (국민대학교 연구교수) 문 영 (국민대학교 교수)

본 연구는 국내 대학 교양 중 K대학교의 우수 무용강좌의 교과과정을 분석하고, 이 강좌를 진행하는 담당 교수자의 “개방된” 교수법을 소개함으로써 국내 대학 교양강좌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로 “공연예술읽기”의 교과과정과 교수법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첫째, 이 강좌의 교과과정의 특징은 학제통합성, 무용소양성, 향유과정성으로 나뉘었다. 학제통합성은 학문간의 벽을 허물고 간학문적 접근을 활용하는 것, 무용소양성은 무용을 통해 각 분야의 소양을 함양하도록 돕는 것, 향유과정성은 무용과 예술을 통해 학생들이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고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공연예술읽기” 강좌의 교수법 역시 세 가지 특징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과 교육의 연결’, ‘전공에 대한 애정의 표출’, ‘추상적인 예술의 실체화’로 특징지어지는 “개방된” 교수법은 교수자와 학습자의 관계를 보다 친밀하게 만들어주고, 예술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친숙함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교양무용강좌가 보다 교육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세 가지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이론적 수준과 실천적 수준의 통합을 위해 양 분야 무용교수자의 협업이 필요하다. 둘째, 교양무용교육으로서 미시적 교과과정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페다고지 관점의 수업 실천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교양무용강좌가 학생들의 정서, 삶 등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21세기 교양교육으로서 무용강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며, 미시적 교과과정의 전형적인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임수진, 문영(2016).대학 교양 우수강좌 사례연구: 무용강좌 교과과정과 교수법의 특징을 중심으로.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4(3), 133-156.

초상화기법

질적 연구 방법으로서의 초상화법 소개와 특징 고찰 / 전영국 (순천대학교 교수) 이현주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본 논문은 질적 연구 방법론으로 주목 받고 있는 초상화법을 소개하고 자료 분석 방법과 초상 글쓰기 방식에 따른 사례를 고찰함으로써 초상화법에 대한 학문적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초상화법은 연구자가 연구주제에 관하여 심층면담을 포함한 각종 자료를 연구자의 눈(통찰)을 통하여 해석한 결과를 마치 초상화를 그리듯이 묘사하여 제시하는 질적 연구 방법이다. Lawrence-Lightfoot의 초상화법은 문화기술지에서 출발하여 학교문화 또는 개인의 실재성(reality)에 대한 자료를 다양하게 수집하여 통합적인 해석을 통하여 연구 대상에 대한 초상을 그려 내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Witz와 동료들이 제시한 본질적 초상화법은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공감적 내성 원리에 따라 이해함으로써 연구 참여자의 고유한 측면(unity)을 묘사하는 인물 사례의 방식을 띠고 있다. 두 방법론을 비교 고찰한 결과 Witz와 동료들이 개발한 초상화법은 면담 자료에 대한 미시적 분석 방법의 사용, 시간흐름표 기반의 주요 흐름 포착, 그리고 생생한 인용구에 대하여 의미심장한 부분을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주석 달기를 함으로써 연구자가 보고 느낀 바를 글쓰기 하는 특징과 이를 뒷받침하는 주요 원리를 보여주었다.

전영국, 이현주(2016). 질적 연구 방법으로서의 초상화법 소개와 특징 고찰. 교육문화연구, 22(4), 5~23.

New Research

자발적으로 그린 유아의 그림에 관한 질적 분석 : 유아-엄마의 관계 및 세상에 대한 이상적 측면을 중심으로

/ 전영국 (순천대학교 교수)
배성아 (호서대학교)
장용석 (죽암초등학교)

이 연구의 목적은 유아가 자발적으로 그린 그림을 통하여 엄마와 교감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양상과 더 나아가 그림을 통하여 표현하고자 했던 주요 측면(예, 세상에 대한 이상적인 부분 등)을 포착함으로써 유아의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다. 연구참여자인 지우는 스스로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였으며 자신이 그린 그림에 관하여 엄마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즐겨하였다. 우리는 지우가 만 4살 반이었을 무렵인 2012년 봄부터 2013년 봄까지 그렸던 약 20개의 그림들을 수집하였고 2015년 5월 및 10월 사이에 엄마를 대상으로 지우가 그림을 그리던 상황에 대하여 회상 기반의 면담을 세 번 실시하였다. 질적 분석 결과 우리는 지우의 그림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양상 외에도 가족간의 소통을 매개해 주면서 교감하는 측면과 지우가 가족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이상적 측면을 묘사하였다. 지우의 사례는 그림을 통하여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가족을 대하는 태도와 느낌 외에도 세상에 대한 이상적 측면을 담고 있는 더 큰 전체성(larger wholes)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전영국, 배성아, 장용석(2016). 자발적으로 그린 유아의 그림에 관한 질적 분석: 유아-엄마의 관계 및 세상에 대한 이상적 측면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 16(6), 595-618.

News

2016년 4월
미국교육과정학회(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Curriculum Studies) 학술대회 발표

제 목	Resolve in the Synthetic Phase of Currere
발표자	정정훈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발표내용	Resolve는 "(문제등을)해결하다, 의결하다" 등의 사전적 의미를 지니지만 Pinar(2015)는 "ethical convintion"(윤리적 신념 혹은 확신)"으로 개념화한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쿠레레를 통한 개인의 경험에 대한이해가 개인이 과거의 (때로는 고통스러운) 경험으로부터 해방되어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윤리적 결심 혹은 신념에 다다를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제 목	Hagwon/Shadow Education as Curriculum Studies
발표자	정정훈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김영천 (진주교육대학교)
발표내용	이 논문은 '교육과정연구의 세계화' 그리고 '탈식민 교육과정탐구' 담론에 참여하는 하나의 노력이다. 연구자들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독특한 교육현상인 학원교육(혹은 그림자교육)을 교육과정 탐구의 새로운 분야로 제안하였다. 이에 학원교육에 대한 교육과정 탐구 주제로서 '교육생태학적의 부분으로서의 학원교육', '학원교육의 개별화', '학원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생경험 탐구', '학원 교육자들의 삶과 직업', '학원교육과 아동발달', '학원의 교육과정과 교수법', 그리고 교육경험의 불평등 강화, 학생의 수동성 강화, 등과 같은 '비판적 이슈들' 등 일곱 개의 영역을 제안하였다.

News

2016년 4월
미국교육학회(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학술대회 발표

제 목	*Donghak* (Eastern Learning), self-other, and social transformation
발표자	문승호 (Loyola University Chicago)
발표내용	한국학 중앙연구원의 연구지원으로 실행한 연구로, 동학 연구의 선구자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동학의 "오심즉여심" 철학이 자아-타아 그리고 사회 개혁에 주는 교육학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제 목	Unfinished variations of lived experience: The curricular encounter between Maxine Greene and Korean Arts
발표자	문승호 (Loyola University at Chicago)
발표내용	질적 실행연구로서, 국제 여름학교에 참여한 외국 학생들의 한국 체험을 맥신 그린 교수의 미학 철학으로 재해석하였다.

2016년 5월
세계질적탐구학회 (International Congress of Qualitative Inquiry) 학술대회 발표

전영국 학회장은 지난 2016년 5월 19-22일에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UIUC)에서 개최되는 ICQI (세계질적탐구학회)에서 초상화법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특별 세션으로 진행되는 이번 발표는 학회 고문이신 일리노이 대학교의 클라우스 위츠 교수와 국제 편집위원이신 데이비드 굿윈과 함께 초상화법을 이용하여 아동의 내면 세계를 탐구하는 방법과 사례를 소개하였다.

제 목	The unfolding of the child as a whole person: Case studies and issues
발표자	Klaus G. Witz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제 목	Exploration of elementary students' subjective experience in STEM-related Inquiry Activity and Learning
발표자	David Goodwin (Missouri State University)

제 목	A Korean boy's drawing activities over 1 1/2 years: "higher aspects" (moral feelings, ideals), communion with the mother, streams of energy, spontaneous invention
발표자	전영국 (순천대학교), 장용석 (죽암초등학교), 배성아 (호서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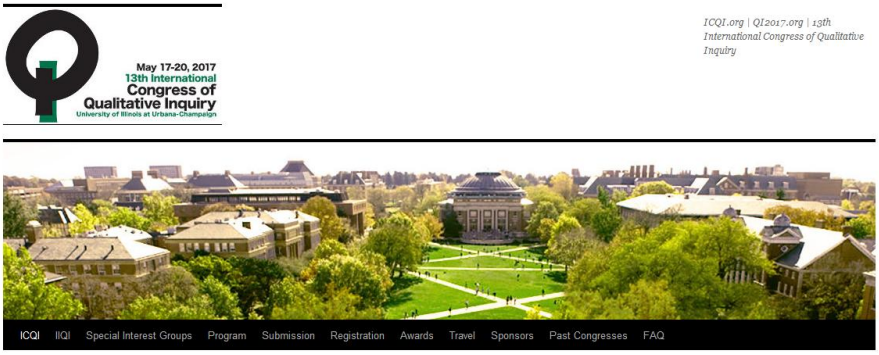
2016년 7월
ECSS (European College of Sport Science) 학술대회 발표

제 목	Savoring dance in life: A case study of middle-aged Korean women participating in a dance education program
발표자	권선영(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최의창 (서울대학교)

2016년 8월
88 서울올림픽기념 국제학술대회 (The 28th international Sport Science Congress) 발표

제 목	How is Youth's Emotion Cultivated in Dance Education? : An Exploratory Study on the Kinds of Emotions and Main Factors
발표자	박성혜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 세계질적탐구학회 (ICQI) 소개



(사진 출처: https://icqi.org)

일리노이 대학교의 노만 덴진 교수가 이끄는 ICQI (세계질적탐구학회)는 매년 5월 중순경에 1회 개최되며 전 세계에서 약 1500명 이상이 참가하는 대규모 질적 탐구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질적연구 방법에 관한 다양한 워크샵이 10개 이상 개최되며 사전 행사로 특별 관심 그룹(SIG)이 준비되어 있기도 하다. 10년 전에 일본인들의 모임이 별도 개최된 적이 있으며 올해에는 중국인들의 모임이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런 경향을 감안할 때 향후에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질적 연구자들과 연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미주 지역에서 질적 연구에 관하여 가장 활발하게 교류하는 ICQI(세계질적탐구학회)는 매년 12월 중순경에 발표자 신청을 마감한다. 영어 초록만 제출하고 실제 발표는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여 자유롭게 연구의 과정을 소개하므로 발표의 부담이 크지 않다. 만약 한국인의 모임을 SIG 형태로 진행한다면 한글 초록과 한국어를 사용하여 발표가 가능하며 발표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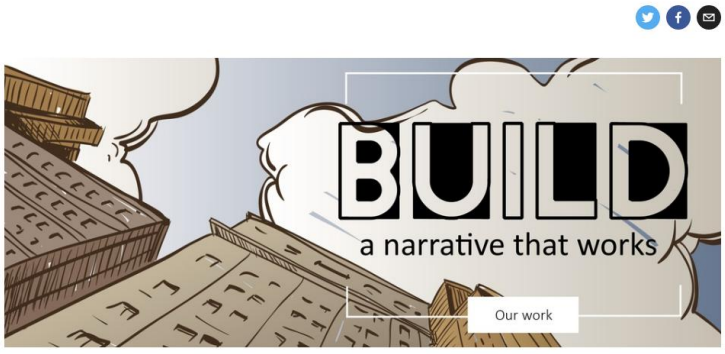
참고로 유럽에서는 벨기에가 중심이 되어 유럽질적탐구학회 학술모임이 결성되어 2017년 2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질적탐구에 관한 국제적인 학술활동이 점점 확산되고 있으며 교육과 문화 영역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 https://kuleuvencongres.be/ECQI2017)

(2017년도 ICQI 학술발표에 관심 있는 분들은 ycjun@sunchon.ac.kr (전영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News

* 'Narrative Matters' 학회 소개

2016년 6월 20~23일 캐나다 빅토리아 대학에서 2년을 주기로 개최되는 Narrative Matters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학술대회 주제는 How Narrative Research Transforms Peoples and Communities 이었으며, 본 학회 이사로 있는 중원대학교 홍영숙 교수가 "I'm NOT a Korean!": Stories to Live by of a Korean-American NEST Teaching at a University in Korea 라는 제목의 논문 구두발표를 위하여 참가하였다. 차기 Narrative Matters 국제학술대회는 2018년 7월 2~5일 네덜란드 University of Twente에서 열릴 예정이다.



(사진 출처: http://www.narrativematters.co.uk)

사람들

- **김보영 학회이사 / 소속변경**
  근무지 : 경상대학교 간호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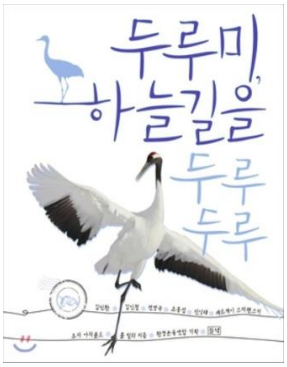
- **문승호 학회이사 / 소속변경**
  근무지 : Loyola University Chicago

- **최의창 학회이사 / 보직임명**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학생부학장 임명 (2016년-2018년)

- **홍영숙 학회이사 / 2016년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연구과제 선정**
  과제명 : '한국에서 부모되기 :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와의 관계성 탐구-언어 중재(Language Brokering) 경험 중심으로 '

- **임수진 회원 / 2016년 인문사회분야 학문후속세대 (학술연구교수) 지원사업 선정**
  과제명 : '댄스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대학 교양강좌에서의 적용 및 효과 탐색'
  근무지 : 국민대학교

신간도서 출판



공저 : 김신환, 김인철, 전영국, 조홍섭, 진익태, 세르게이 스미렌스키, 조지 아치볼드, 홀 힐리

『두루미 하늘길을 두루두루』는 멸종위기종을 지키고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는 데서 출발한다는 생각으로 환경운동연합이 기획한 책이다. 두루미에 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은 물론이고 번식지와 도래지를 누비며 촬영한 야생 사진들을 만날 수 있다. 전영국 교수는 순천에 살면서 자신이 좋아하는두루미에 관한 문화예술 관련 활동과 경험을 에세이 형태로 소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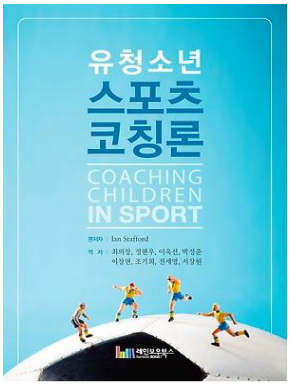
공저 : 허숙, 이승렬, 김미정, 고대혁, 이근호, 홍영숙, 김대군, 김영훈, 오만석, 박세원

저자들은 연구 분야와 관심사를 접목해 교사의 참모습 탐색, 교사교육 및 교육과정 재개념화를 통한 '다시 쓰기'라는 집필 주제를 도출했다. 이에 따라 제1부에서는 한국 및 동·서양의 다양한 담론에 비추어 교사의 참모습을 탐색하였고, 제2부에서는 교사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였으며, 제3부에서는 교육과정에 대한 재개념화에 집중하였다.



공저 : 최의창, 홍애령,박혜연, 임수진, 김나이

『무용교육탐구』는 저자들이 지난 수년간 발표한 연구들을 묶어서 무용교육을 새롭게 이해하는 하나의 작은 그림을 모자이크처럼 만들어내 보려고 하였다. 무용교육의 목적, 무용교육의 내용, 무용교육의 방법, 그리고 무용교육 프로그램이라는 4개의 부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 : Ian Stafford
공역 : 최의창, 정현우, 이옥선, 박정준, 이창현, 조기희, 전세명, 서장원

『유청소년 스포츠코칭론』은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코칭 활동 전반을 내용으로 하는 포괄적인 입문서이다. '코칭', '유청소년', '스포츠'라는 세 개의 부로 구분되어 있으며 19장으로 구성된 각 장에서는 필수적인 세부주제들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Contents of JQI

1권 1호

저자	제목	페이지
류지선, 김영천	질적 연구에서의 콜라주 표현기법 탐색 :한국 다문화 아동의 삶의 새로운 재현	1-26
정정훈	쿠레레를 통한 주관성의 회복: 좌절과 재건	27-45
Klaus G. Witz	Portraiture and Essentialist Portraiture	47-58
박창민, 민성은, 김영천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원교육 경험의 특징과 그 의미	59-89
김병훈, 서광봉	여가 모터사이클 참여자의 진지한 여가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91-110

1권 2호

저자	제목	페이지
전영국	초상화법 질적 연구 방법과 수행 절차에 관한 탐구	1~23
박미옥, 김명찬	사별 후 재혼 가정에서 자란 한 어머니의 자녀 양육 경험:협력적 자문화기술지	25~56
조재성, 최성호	클라이맥스(Climax): 한국 고등학생의 학원에서의 학습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57~97
김필성, 김영천	문화기술지 연구에서의 영역 분석	99~122
김수진, 고하늘, 김보영	자살시도 청소년의 이야기치료 적용 질적 사례연구	123~146
공유정, 김수연, 윤소정, 허현정	글 없는 그림책을 활용한 이야기 만들기 활동에서 나타난 만 5세 유아의 내러티브 탐구	147~176

2권 1호

저자	제목	페이지
이동성	한 교육대학원 교사교육자의 교수적 갈등과 딜레마에 대한 자문화기술지	1~31
Seungho Moon	Poststructural Theorizing of “Experiences”: Implications for Qualitative Research and Curriculum Inquiries	33~65
박제인, 김수진	강박장애환자의 인지행동치료프로그램 참여경험에 대한 질적사례연구	67~96
최라영, 조미경	원로 교수의 생애사적 성찰과 학습 탐색	97~125
최성호, 정정훈, 정상원	질적 내용 분석의 개념과 절차	127~155
한진상	전남지역 고등학생들이 경험한 방과 후 학교의 효과와 한계에 관한 연구	157~180
박성희	노인 자서전쓰기에 나타난 생애사 학습의 의의	181~204

추계학술대회 안내

1. 2016년도 한국질적탐구학회 추계 학술대회 개요

일시: 2016년 9월 24일(토요일), 09:30~17:00
장소: 이화여자대학교(교육관 B동)
주제: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와 공유: 연구의 설계에서 글쓰기까지
신청: 홈페이지(kaqi.or.kr)에서 온라인 가입–학술행사–사전등록–신청
※ 학술대회 참가비(등록비) 무료

2. 세부계획

학술대회 프로그램

<table>
<tr><th>시간</th><th colspan="3">프로그램(안)</th><th>사회자</th></tr>
<tr><td>09:30~09:45</td><td colspan="3">• 현장 등록
• 학회장 축사
• 학회 편집위원장 축사</td><td rowspan="4">이현주
(이화여대)
교육관 B동
지하 B 153</td></tr>
<tr><td>09:45~10:00</td><td colspan="3">석사학위 논문 발표: 민성은(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제목: 학습의 탈경계와 노마드: 세 중학교 학생들의 학습 문화(2016)</td></tr>
<tr><td>10:00~10:15</td><td colspan="3">박사학위 논문 발표: 나종민(전북대학교 대학원)
제목: 상징자본에 따른 혁신학교 교원들의 권력관계(2016)</td></tr>
<tr><td>10:15~10:30</td><td colspan="3">질의 및 응답</td></tr>
<tr><td colspan="5">워크숍 준비 및 장소 이동</td></tr>
<tr><td rowspan="2">10:30~12:30
(2H)</td><td>워크숍 A
(1층, 151 강의실)</td><td colspan="2">워크숍 B
(1층, 152 강의실)</td><td>초급 과정</td></tr>
<tr><td>초보자 입문 과정
이동성 교수
(전주교육대학교)</td><td colspan="2">질적 연구의 설계 및 계획서 작성
허창수 교수
(충남대학교)</td><td>40명 선착순</td></tr>
<tr><td>12:30~13:30
(1H)</td><td colspan="4">중식 및 휴식(Lunch & Break Time)</td></tr>
<tr><td rowspan="2">13:30~17:00
(3H 30M)</td><td>워크숍 C
(1층, 151 강의실)</td><td>워크숍 D
(1층, 152 강의실)</td><td>워크숍 E
(1층, 153 강의실)</td><td>고급 과정</td></tr>
<tr><td>내러티브 탐구
홍영숙 교수
(중원대학교)</td><td>심층 인터뷰
김필성 교수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td><td>근거이론
박승민 교수
(숭실대학교)</td><td>30명 선착순</td></tr>
</table>

학술대회 참가비(현장 등록비) 무료

워크숍 참가 등록

워크숍 사전등록 마감일은 9월 12일(월)입니다.
사전등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_**참가비** : 학생 및 일반인 구분 없이 아래 등록비 참고
_**입금 계좌** : 농협 302-0917-2240-41 전영국(한국질적탐구학회)

	사전등록비(중식 포함)	현장등록비(중식 포함)
초급 과정(오전) 워크숍 참가(택 1) 워크숍 A / 워크숍 B	35,000원	40,000원
고급 과정(오후) 워크숍 참가(택 1) 워크숍 C / 워크숍 D / 워크숍 E	55,000원	60,000원
워크숍 중복(초급 / 중급) 참가 (택 2)	80,000원	90,000원

1. 한국질적탐구학회 홈페이지(kaqi.or.kr)에서 온라인 가입 후 학술행사 – 사전등록을 누르고 신청합니다.
2. 워크숍 사전 등록비를 입금해주세요.
3. 그 외 현장에서 등록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및 납부안내

- 온라인 상에서 회원가입을 합니다.
- 회원가입 절차를 마친 후에 아래와 같이 연회비를 납부하셔야 회원으로 정식가입이 완료됩니다.

- 회원가입 비용 입금 : 농협 302-0917-2240-41 / 예금주 : 전영국(한국질적탐구학회)
- 입금시 이름과 내용을 입금자명에 기재 바랍니다.
  ex) 홍길동이 일반 회원회비 납부시 - 홍길동회원

- 회원등급에 따른 회비

일반	학생
5만원/연	3만원/연

- '학생'에는 석박사 과정생을 포함합니다. (가입비 없음)

학회지 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 안내

- 논문접수는 로그인을 하신 후, 본 학회 홈페이지 내 [논문접수] 메뉴의 하위 메뉴인 [논문접수] 메뉴를 이용해 주십시오 . (이메일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논문 접수를 위해서는 연회비(일반 5만원, 학생 3만원)를 납부하신 학회회원이셔야 하며,
  심사료 6만원을 편집국 계좌로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 심사료 및 게재료 납부 : 신한 110-435-51740 / 예금주 : 이현주

- 원고는 학회 홈페이지에 탑재된 논문투고원본 파일로 작성하여
  투고신청서(투고신청서.hwp)와 함께 편집국 이메일 kaqijournal@gmail.com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 회원님들의 많은 투고 바랍니다.

고문 김명희 (한양대학교) / 신향근 (순천대학교) / Klaus Witz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회장 전영국 (순천대학교)

부회장 이철원 (연세대학교)

이사진

강윤수 (순천대학교)
길양숙 (강원대학교)
김대현 (부산대학교)
김동민 (전주대학교)
김명찬 (인제대학교)
김보영 (경상대학교)
김선희 (서울여자대학교)
김성봉 (제주대학교)
김소연 (극동대학교)
김영신 (숙명여자대학교)
김영천 (진주교육대학교)
김영환 (부산대학교)
김요완 (서울사이버대학교)
김진경 (강릉영동대학교)
문승호 (Loyola University Chicago)
박성희 (공주대학교)
박승민 (숭실대학교)
배성아 (호서대학교)
손승남 (순천대학교)
안영식 (동의대학교)
이동성 (전주교육대학교)
이재영 (한국교원대학교)
이철원 (연세대학교)
이현주 (이화여자대학교)
이현철 (고신대학교)
장용석 (적암초등학교)
전명남 (대구한의대학교)
정가윤 (명지대학교)
정정훈 (진주교육대학교)
조정수 (영남대학교)
조희순 (용인송담대학교)
주재홍 (진주교육대학교)
최의창 (서울대학교)
최지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진상 (목포대학교)
허창수 (충남대학교)
홍영숙 (중원대학교)

임원

김보영 / 총무이사
이현철 / 기획이사
김영천 / 국제협력위원장
손승남 / 콜로키움위원장
이동성 / 학술대회위원장
배성아 / 연구윤리위원장
이현주 / 학술지편집위원장

편집위원

국문편집

김보영 (경상대학교)
김성봉 (제주대학교)
김영천 (진주교육대학교)
나미수 (전북대학교)
서경혜 (이화여자대학교)
서광봉 (경민대학교)
손승남 (순천대학교)
이동성 (전주교육대학교)
이현철 (고신대학교)
조정수 (영남대학교)
주재홍 (진주교육대학교)

영문편집

Brinda Jegatheesan (University of Washington)
David R. Goodwin (Missouri State University)
Klaus Witz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Seungho Moon (Loyola University Chicago)

간사 조은하 (순천대학교)

로고디자인 장용석 (적암초등학교)